

# 최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변화

## - 2015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

김복순 · 정현상\*

### I. 머리말

고용의 양적 증가면에서 2014년(1~10월 평균 553천 명 증가) 노동시장 실적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가장 성적이 우수한 한 해였다. 그러다 보니 2014년 이례적인 고용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에다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기부진, 여기에다 메르스 등의 일시적인 충격으로 2015년 고용의 증가폭은 20만 명 이상 줄어들었다. 2015년에는 상용직을 중심으로 한 임금근로자의 꾸준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비임금근로자의 고용감소폭이 확대된 것이 올해 고용부진의 주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어나면서 2015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규모는 전년동월대비 194천 명이 증가한 6,270천 명으로 임금근로자의 32.5%(0.1%p 증가)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비중이 장기적으로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2년 이후 2014년까지 비정규직 규모는 증가했으나 임금근로자 대비 그 비중은 감소하던 추세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 글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8월)」를 활용해 비정규직 내적구성 변화에 주목하여 현황과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양적 변화뿐만 아니라 임금, 사회보험, 근로복지 관련 지표들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층(15~29세) 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은 주요 산업에서의 비정규직의 구성변화와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 김복순 =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secsaram@kli.re.kr).

정현상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hsjung@kli.re.kr).

## II. 비정규직 근로형태별 구성 변화

2015년 8월 취업자는 2,61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6천 명이 증가했고, 이 가운데 임금근로자 증가분은 536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 증가분의 2배가 넘었다. 2013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임금근로자에서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나 올해는 특히 비임금근로자의 고용감소 영향이 커지면서 전체 취업자의 고용부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 8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비정규직은 194천 명 증가해 6,271천 명을, 정규직은 341천 명 증가해 13,041천 명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 비정규직의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정규직의 증가폭은 감소하고 있어서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정규직의 비중은 감소하였다(표 1 참조).

세부 근로형태를 보면 한시적 근로의 경우 2015년 8월 3,63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0천 명 증가하였고 임금근로자의 18.8%를 차지하여 2014년까지 3년간 추세적 감소를

〈표 1〉 고용형태별 규모 추이

(단위: 천 명, %)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한시적 근로	비전형 근로	시간제 근로
2005. 8	14,968	9,486 (63.4)	5,483 (36.6)	3,615 (24.1)	1,907 (12.7)	1,044 ( 7.0)
2006. 8	15,351	9,894 (64.5)	5,457 (35.5)	3,626 (23.6)	1,933 (12.6)	1,135 ( 7.4)
2007. 8	15,882	10,180 (64.1)	5,703 (35.9)	3,546 (22.3)	2,208 (13.9)	1,201 ( 7.6)
2008. 8	16,104	10,658 (66.2)	5,445 (33.8)	3,288 (20.4)	2,137 (13.3)	1,229 ( 7.6)
2009. 8	16,479	10,725 (65.1)	5,754 (34.9)	3,507 (21.3)	2,283 (13.9)	1,426 ( 8.7)
2010. 8	17,048	11,362 (66.7)	5,685 (33.3)	3,281 (19.2)	2,289 (13.4)	1,620 ( 9.5)
2011. 8	17,510	11,515 (65.8)	5,995 (34.2)	3,442 (19.7)	2,427 (13.9)	1,702 ( 9.7)
2012. 8	17,734	11,823 (66.7)	5,911 (33.3)	3,403 (19.2)	2,286 (12.9)	1,826 (10.3)
2013. 8	18,240	12,295 (67.4)	5,946 (32.6)	3,431 (18.8)	2,215 (12.1)	1,883 (10.3)
2014. 8	18,776	12,699 (67.6)	6,077 (32.4)	3,508 (18.7)	2,112 (11.2)	2,032 (10.8)
2015. 8	19,312	13,041 (67.5)	6,271 (32.5)	3,638 (18.8)	2,206 (11.4)	2,236 (11.6)

주: 1) ( ) 안은 임금근로자 중 비중.

2) 한시적 근로이면서 비전형 근로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한시적 근로자에도 포함되고 비전형 근로자에도 포함되므로, 전체 비정규직 수는 한시적 근로+비전형 근로+시간제 근로의 합이 아님. 전체 비정규직 수는 이와 같은 중복을 제거한 값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보였으나 2015년에 다시 상승하였다. 또한 비전형 근로도 한시적 근로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임금근로자의 11.4%를 차지하여 다소 증가하였다. 특히 시간제 근로는 2015년 8월 2,23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4천 명 증가했고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크게 증가하여 11.6%를 차지했다. 이는 세부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내에서의 구성변화를 유발하였는데, 시간제 근로와 비전형 근로 각각이 비정규직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9.0%와 34.8%였던 것이 2015년 35.7%, 35.2%로 비중이 역전되었다.

한시적 근로자를 세부 형태별로 나누어 보면 반복갱신을 제외한 기간제와 기대불가에서 규모와 비중 모두 2014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표 2 참조). 기간제 근로는 여전히 한시적 근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중후반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또 일용직이나 일일근로와 매우 유사한 근로조건을 보이며 일자리 질이 좋지 않은 기대불가(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고용이 지속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는 일자리)의 경우 규모와 비중 모두 추세적 감소를 지속하며 2015년 473천 명을 기록하였고, 임금근로자의 2.4%, 비정규직 전체에서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규직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근접해 상대적으로 고용의 질이 좋다고 볼 수 있는 반복갱신(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반복하여 계약이 갱신되는 형태)은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시기에 따라 증감 폭이 매우 큰 것이 관찰된다. 반복갱신은 비정규직 내에서

〈표 2〉 한시적 근로 및 비전형 근로의 세부 형태별 고용규모 및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한시적 근로			비전형 근로				
	기간제	반복갱신	기대불가	파견	용역	특수고용	가내 근로	일일근로
2005. 8	2,728 (18.2)	302 (2.0)	585 (3.9)	118 (0.8)	431 (2.9)	633 (4.2)	141 (0.9)	718 (4.8)
2006. 8	2,722 (17.7)	465 (3.0)	439 (2.9)	131 (0.9)	499 (3.2)	617 (4.0)	175 (1.1)	667 (4.3)
2007. 8	2,531 (15.9)	555 (3.5)	460 (2.9)	174 (1.1)	593 (3.7)	635 (4.0)	125 (0.8)	845 (5.3)
2008. 8	2,365 (14.7)	374 (2.3)	549 (3.4)	139 (0.9)	641 (4.0)	595 (3.7)	65 (0.4)	818 (5.1)
2009. 8	2,815 (17.1)	170 (1.0)	521 (3.2)	165 (1.0)	622 (3.8)	637 (3.9)	99 (0.6)	883 (5.4)
2010. 8	2,494 (14.6)	305 (1.8)	481 (2.8)	211 (1.2)	608 (3.6)	590 (3.5)	70 (0.4)	870 (5.1)
2011. 8	2,668 (15.2)	339 (1.9)	436 (2.5)	197 (1.1)	673 (3.8)	614 (3.5)	75 (0.4)	962 (5.5)
2012. 8	2,714 (15.3)	289 (1.6)	400 (2.3)	214 (1.2)	682 (3.8)	545 (3.1)	69 (0.4)	871 (4.9)
2013. 8	2,761 (15.1)	259 (1.4)	412 (2.3)	204 (1.1)	646 (3.5)	545 (3.0)	73 (0.4)	821 (4.5)
2014. 8	2,749 (14.6)	353 (1.9)	405 (2.2)	194 (1.0)	604 (3.2)	524 (2.8)	58 (0.3)	805 (4.3)
2015. 8	2,860 (14.8)	305 (1.6)	473 (2.4)	210 (1.1)	656 (3.4)	494 (2.6)	55 (0.3)	876 (4.5)

주: ( ) 안은 임금근로자 중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임금과 근로조건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 근로형태가 변화하는 정도에 따라 비정규직의 평균적인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크다. 2015년 8월 반복갱신의 규모는 305천 명으로 2014년 8월 대비 48천 명이 감소해 임금근로자의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형 근로를 세부 형태별로 보면, 파견과 용역, 일일근로의 규모와 비중은 증가했고 특수고용과 가내근로에서는 규모와 비중 모두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2 참조). 먼저 파견근로는 2015년 8월 임금근로자 중 1.1%를 차지하며 210천 명으로 나타났다. 파견근로의 규모가 2010년 이후 20만 명 부근에서 소폭의 증감을 하기 때문에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 수준에서 소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편 용역근로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2008년 이후 60만 명 중반 수준으로 임금근로자의 3% 수준에서 횡보 중이다.

반면 특수고용은 규모와 비중 모두 추세적인 감소를 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494천 명을 기록하며 임금근로자의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가내근로는 규모가 크지 않으며, 그 수가 감소하고 있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형근로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일일근로는 2012년 이후 80만 명대에서 횡보 중이며, 2015년 876천 명으로 임금근로자의 4.5%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서 산업별로 비정규직의 규모를 살펴보면 농림어업과 건설업은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림어업 비정규직은 2011년 121천 명을 정점으로 추세적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88천 명으로 69.8%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업은 금융위기 이후 규모에 있어서 추세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 676천 명으로 비정규직 비중이 50% 이하로 낮아졌으나 2015년에 들어 70만 명대로 비정규직 규모가 증가하면서 비중 또한 50%를 다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건조한 취업자 증가를 기록하고 있는 제조업의 경우 비정규직의 비중은 1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어 질적 측면에 있어서도 양호한 고용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업 전체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은 30% 중후반대에서 횡보 중이기는 하나 규모 측면에서는 꾸준한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2005년 8월 3,805천 명에서 2015년 8월 4895천 명으로 10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세부산업별로 살펴보면 대표적인 내수업종이면서 2014년 고용증가세를 주도했던 도소매업의 경우 비정규직 규모는 60만 명대에서 횡보 중이며,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은 30%대를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4년 8월 임금근로자가 151천 명 증가한데 비해 2015년 8월 상용직으로만 14천 명 증가하여 양적으로 악화되었으며, 증가한 14천 명 중에서 13천 명이 비정규직이어서 질적으로도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표 3〉 산업별 비정규직 고용규모 및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농업, 임업 및 어업	114 (78.3)	99 (68.0)	109 (67.5)	121 (69.3)	83 (61.5)	88 (69.8)
제조업	710 (20.7)	690 (20.5)	523 (16.2)	538 (15.6)	503 (13.9)	547 (13.6)
건설업	838 (63.1)	807 (57.9)	727 (54.9)	717 (51.3)	693 (51.3)	726 (52.3)
서비스업	3,805 (38.1)	4,094 (37.6)	4,382 (37.6)	4,609 (37.1)	4,652 (35.7)	4,895 (35.8)
도매 및 소매업	653 (35.3)	650 (33.5)	635 (32.9)	647 (30.9)	626 (29.5)	646 (28.9)
운수업	170 (26.6)	173 (25.5)	144 (21.4)	149 (20.7)	153 (20.1)	148 (18.9)
숙박 및 음식점업	540 (48.4)	457 (38.9)	421 (38.2)	441 (40.2)	507 (41.0)	592 (41.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등	152 (26.8)	163 (26.6)	130 (21.4)	136 (20.6)	151 (23.2)	139 (19.4)
금융및보험업	321 (46.5)	378 (50.7)	314 (43.9)	343 (41.6)	336 (39.6)	290 (38.6)
부동산및임대업	127 (40.5)	115 (38.7)	135 (44.6)	134 (43.4)	138 (41.0)	158 (43.6)
전문과학 등	127 (25.0)	159 (26.6)	127 (17.7)	157 (18.4)	151 (17.5)	150 (16.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등	559 (77.6)	752 (80.4)	721 (79.1)	867 (79.6)	843 (77.0)	865 (74.1)
공공행정 등	170 (21.8)	196 (24.5)	524 (44.5)	287 (29.1)	282 (28.7)	272 (28.6)
교육서비스업	467 (37.2)	470 (34.4)	513 (34.9)	555 (41.1)	520 (37.0)	537 (36.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6 (26.8)	179 (26.3)	317 (33.6)	466 (37.6)	523 (35.2)	639 (37.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102 (46.0)	102 (46.0)	99 (42.7)	129 (51.7)	119 (46.2)	139 (48.1)
협회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50 (27.6)	176 (28.9)	184 (28.1)	199 (27.9)	196 (26.8)	263 (33.7)
가구 내 고용활동 등	96 (79.1)	108 (67.5)	101 (73.2)	88 (58.9)	96 (54.9)	36 (56.9)

주: ( ) 안은 임금근로자 중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또한 금융 및 보험업은 최근 구조조정 여파에 의한 고용감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비중의 약 40%대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전체 취업자 증가가 부진함에도 고용증가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고용의 지지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관리·지원업은 금융위기 이후 2010년 비정규직 규모가 처음으로 80만 명을 넘었고 2015년 8월 865천 명이

비정규직으로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의 비중도 70% 이상을 기록 중이며, 전체 산업 중에서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의 비중 또한 가장 높았다.

보건 및 복지서비스업은 2014년 평균 전년동월대비 10만 명 이상의 취업자가 증가하였으며, 올해에는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긴 했으나 여전히 전체 고용을 지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200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고용이 증가하여 비정규직의 규모 역시 2005년 156천 명에서 2015년 639천 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한편으로는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정책으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가 대부분인 특성을 갖고 있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Ⅲ.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임금, 사회보험, 근로복지 관련 지표 변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임금근로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제금융위기 전후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규모는 임금근로자의 32.5%인 627만 명이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규직을 기준으로 할 때 비정규직의 임금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우선 월평균 임금(6~8월 평균)으로 비교해 보면, 2015년 정규직은 269.6만 원인 반면 비정규직은 146.7만 원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상승률은 정규직(3.6%)에 밀도는 1.0% 상승에 그쳤다.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54.4, 정규직=100)은 이로 인해 더욱 확대되어 조사 이래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임금상승률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플러스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한시적 근로에 속하는 반복갱신(-5.4%), 비전형 근로에 속하는 특수형태근로(-4.8%)는 전년동월대비 마이너스 임금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이 두 근로형태는 정규직 임금수준에 가장 근접한 비정규직으로 정규직 기준 상대임금 수준이 각각 78.1, 73.2이다. 최근 몇 년간 시·간제 근로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임금상승률은 등락을 거듭하면서 2015년 8월 현재 6.6%였으며, 정규직 기준 상대임금 수준은 26.2%로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지난 10년간(2005~2015년) 근로형태별 연평균 임금상승률을 보면, 정규직은 3.9%인 가운데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낮은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근로형태별 임금상승률을 보면 용역근로와 일일근로는 지난 10년간 정규직의 임금상승률을 넘는 4%대의 상승률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 추이 및 연평균(2005~2015년) 임금상승률

(단위: 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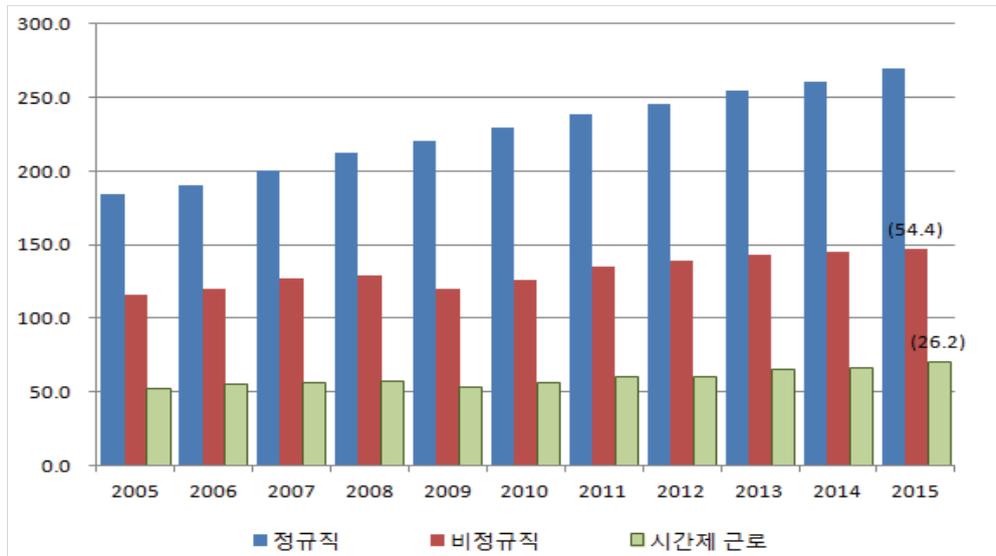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3	2014	2015	'05~'15 (기간평균)
임금근로자	159.3	174.5	184.6	185.2	194.9	203.2	218.1	223.1	229.7 ( 2.9)	3.7
정규직	184.6	200.8	212.7	220.1	229.4	238.8	254.6	260.4	269.6 ( 3.6)	3.9
비정규직	115.6	127.6	129.6	120.2	125.8	134.8	142.8	145.3	146.7 ( 1.0)	2.4
<b>한시적근로</b>	<b>124.0</b>	<b>144.0</b>	<b>145.8</b>	<b>130.1</b>	<b>140.0</b>	<b>150.2</b>	<b>160.2</b>	<b>161.4</b>	<b>162.9 ( 0.9)</b>	<b>2.8</b>
기간제	125.8	141.9	148.9	131.1	136.0	146.3	158.1	158.3	162.6 ( 2.7)	2.6
반복갱신	169.2	194.9	185.4	193.1	226.3	220.2	241.4	222.8	210.7 (-5.4)	2.2
기대불가	92.4	94.5	105.2	103.9	106.1	119.6	123.4	128.7	133.7 ( 3.9)	3.8
<b>비전형근로</b>	<b>108.1</b>	<b>111.2</b>	<b>119.7</b>	<b>119.1</b>	<b>124.9</b>	<b>132.1</b>	<b>141.2</b>	<b>151.5</b>	<b>150.6 (-0.6)</b>	<b>3.4</b>
파견	131.6	134.1	147.3	141.4	141.0	152.4	149.9	152.7	159.1 ( 4.2)	1.9
용역	94.8	102.3	108.3	111.1	117.5	122.4	135.4	138.3	145.3 ( 5.1)	4.4
특수형태근로	142.2	142.2	155.3	152.9	163.0	179.2	180.1	207.2	197.2 (-4.8)	3.3
가정내근로	56.7	56.8	48.6	60.0	43.5	52.0	60.7	60.3	82.9 (37.5)	3.9
일일근로	86.0	89.2	98.3	95.3	104.0	105.5	121.1	127.4	129.2 (1.4)	4.2
<b>시간제근로</b>	<b>52.2</b>	<b>56.1</b>	<b>57.4</b>	<b>53.5</b>	<b>56.5</b>	<b>60.4</b>	<b>65.4</b>	<b>66.2</b>	<b>70.5 (6.6)</b>	<b>3.0</b>

주: ( ) 안은 전년동월대비 월평균 임금상승률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그림 1〉 정규직·비정규직·시간제 근로의 월평균 임금 추이

(단위: 만 원)



주: ( ) 안은 정규직 기준 근로형태별 상대임금 수준임(정규직=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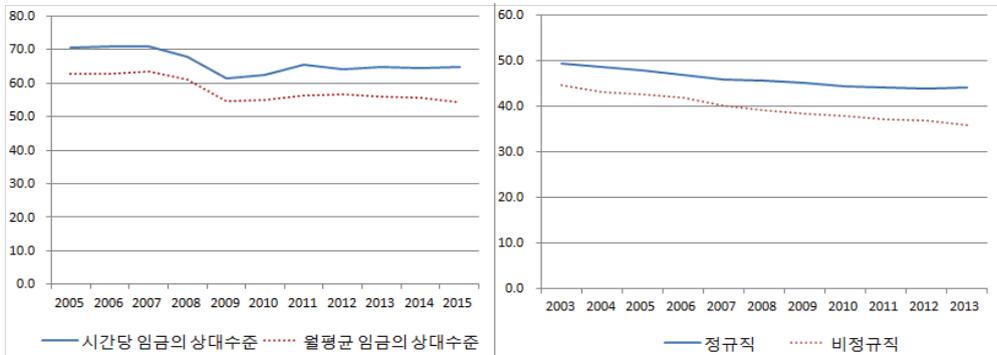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월평균 임금에 이어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감안한 시간당 임금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을 비교해 보아도 월평균 임금과 마찬가지로 국제금융위기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2015년 8월 현재 정규직보다 높은 임금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장기적으로 감소추세지만 2015년에는 비정규직의 평균근로시간 감소폭이 확대된 반면 정규직의 근로시간이 소폭 증가한 영향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8월 현재 비정규직의 시간당 상대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65.0으로 2014년에 비해 소폭 개선되었으나, 조사가 시작된 2002년부터 국제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까지 70.0 이상이었던 상대임금 수준을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수준이 높은 반복갱신,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도 전년동월대비 격차가 확대되는 등 대부분 국제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년동월대비 204천 명이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증가를 이끌고 있는 시간제 근로의 시간당 임금 또한 정규직의 57.8로 2014년에 비해 개선되었지만 국제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근로형태별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수준이 국제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임금 이외의 복지 관련 지표들의 수준은 어떠한가? 여기서는 복지관련 지표로 사회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 수혜율을 근로형태별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먼저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가입률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각각 -1.5%p, -0.9%p, -1.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안전망을 대변해 주는 지표들이 2014년에 이어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수준(좌측, 정규직=100)과 정규직·비정규직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우측)  
(단위: 시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표 5〉 근로형태별 시간당 임금의 상대수준(정규직 = 100)

(단위 :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05~'15 (기간평균)
정규직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7
비정규직	70.5	71.0	70.9	68.0	61.5	62.5	65.3	64.3	64.8	64.3	65.0	3.9
한시적 근로	72.4	74.3	76.1	72.7	64.1	66.2	69.3	69.0	69.1	67.7	66.9	3.9
기간제	74.5	74.6	76.3	75.1	65.5	65.8	69.0	69.4	69.2	67.8	67.9	3.8
반복갱신	89.1	94.0	98.1	88.4	87.2	100.8	93.7	86.5	96.0	85.8	79.3	3.5
기대불가	54.1	51.3	48.0	51.6	48.7	46.4	52.4	54.2	50.9	51.6	53.3	4.6
비전형 근로	63.2	60.1	60.1	59.4	57.0	57.4	58.5	58.7	58.3	60.8	60.3	4.3
파견	76.1	66.3	70.8	71.3	69.7	64.5	66.5	73.4	62.8	60.8	65.9	3.2
용역	48.4	46.1	48.4	49.1	47.9	50.3	49.8	48.9	52.0	51.8	53.0	5.7
특수형태근로	83.2	81.4	79.9	79.7	75.4	77.1	82.4	78.4	76.1	84.0	79.1	4.2
가정 내 근로	47.8	42.9	34.9	36.4	37.1	31.3	34.9	41.6	33.3	27.8	43.1	3.7
일일근로	53.7	51.5	52.0	51.2	47.6	49.0	47.4	50.1	51.5	54.4	54.5	4.9
시간제 근로	76.7	73.1	66.6	64.7	56.2	55.5	59.3	53.3	55.5	54.0	57.8	1.8

주 : 1)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 / (평소 1주당근로시간 \* 365/12\*7).  
 2)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각 근로형태별 상대임금 수준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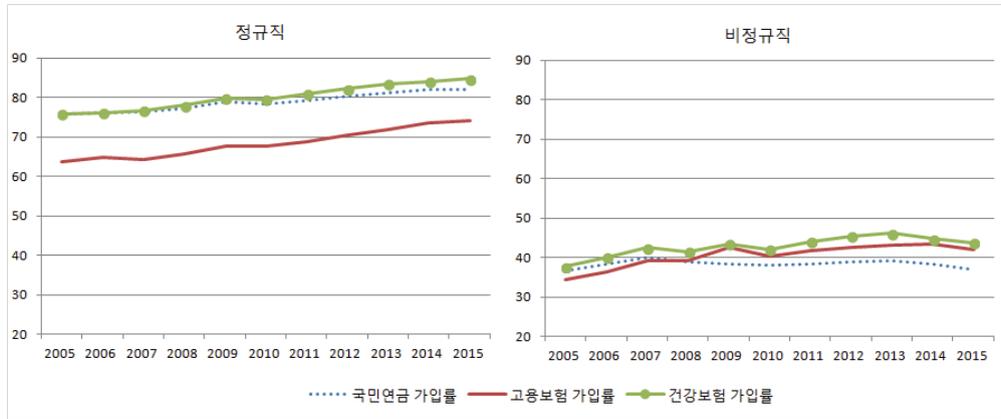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가입률의 경우 정규직 10명 중 7~8명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반면, 비정규직의 절반 이상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특수형태근로(2015년 기준 494천 명)의 경우 2005년 이후 사회보험 가입률이 크게 하락하여 2015년 8월 현재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률이 각각 1.9%, 4.2%, 1.7%로 상당히 낮아 사회안전망이라는 울타리가 사실상 전무해 보인다.

한편 비정규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좀 더 나은 기간제, 반복갱신, 파견, 용역 등 근로형태에서는 절반 이상 또는 60~80%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2014년에 비해 가입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근로의 사회보험 가입률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복지 관련 지표로서 퇴직급여, 상여금, 유급휴가, 시간외수당 수혜율을 보면, 비정규직의 경우 퇴직급여 수혜율이 조금 개선되었을 뿐 상여금(-0.7%p), 시간외수당(-0.6%p), 유급휴가수혜율(-0.1%p)은 전년동월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근로복지 관련 지표들은 20~40% 내외로 정규직과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그림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정규직 대부분에서 복지관련 지표가 2014년보다 낮은 수준인

[그림 3] 정규직·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 추이

(단위 : %)



주: 1) 국민연금 가입률은 직장가입과 지역가입을 구분할 수 있는 해의 경우 직장가입만 대상으로 함. 2008년부터는 직장가입 부분이 가능함. 2007년까지는 가입·미가입으로만 구분되었으나 부가조사 지침서상으로는 2007년까지도 직장가입자만 가입했다고 응답하도록 가이드 함.  
 2) 고용보험 가입률의 경우 2010년 이후 통계는 공식발표 통계와 상이한데, 이는 2010년부터 통계청이 고용보험 비가입대상인 공무원, 교사, 별정우체국 직원을 분모에서 제외했기 때문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표 6] 비정규직 중 특수형태근로·시간제근로의 사회보험 가입률 추이

(단위 :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특수형태 근로	국민연금가입률	21.2	10.0	9.1	6.9	0.5	0.4	3.4	3.8	4.5	2.8	1.9
	고용보험가입률	16.8	7.7	7.9	7.5	2.3	2.0	4.5	5.8	5.6	3.6	4.2
	건강보험가입률	20.8	9.7	8.7	6.4	1.2	0.6	4.1	5.6	5.0	2.8	1.7
시간제 근로	국민연금가입률	2.1	3.2	3.3	6.4	7.4	9.3	11	12.2	13.4	14.6	13.3
	고용보험가입률	2.2	3.2	3.7	6.3	9.1	10.6	13.4	14.8	17.2	19.5	18.8
	건강보험가입률	2.3	3.8	4.0	6.1	8.8	10.6	13.0	14.6	17.9	17.8	17.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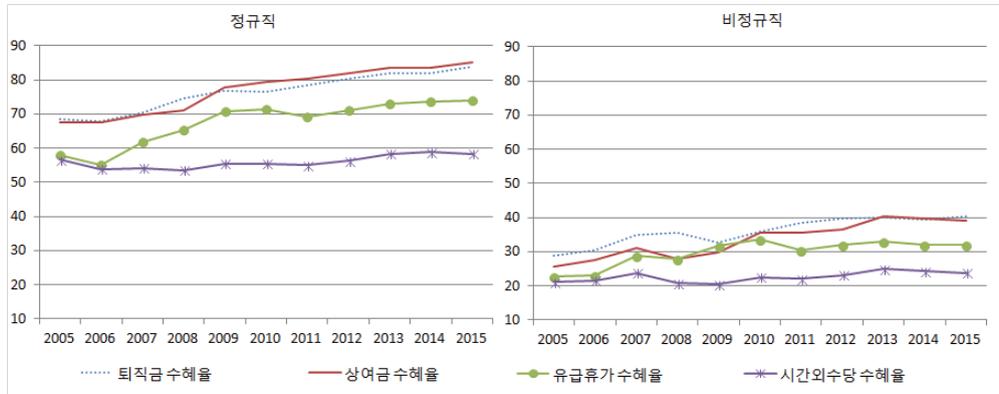
가운데 시간제 근로의 경우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정규직에 비해 상당히 낮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근로형태, 사업체규모에 따라 임금수준, 사회보험 등의 지표에서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

1) 2015년 8월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시간당 임금기준)에 의하면 대규모 사업체 정규직 대비 중소기업 사업체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은 42.3으로 2014년에 비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40%대로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정규직·비정규직의 근로복지 수혜율 추이

(단위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 IV. 청년층 비정규직의 산업별 비정규직 변화 추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더불어 청년층의 취업난 또한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최근 정부의 정책기조가 청년고용정책에 우선적으로 맞추어져 있어 통계상 양호한 취업자 수 증가가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나, 청년층 취업자 중 안정적인 일자리 혹은 적성에 맞는 일자리 등 고용의 질 측면에서 고용실태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장에서는 청년층의 비정규직 변화추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산업별 비정규직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올해 8월 청년층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은 전년동월대비 35.0%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7년에 비해 1.5%p가량 상승하여 2005년의 수준으로 회귀하였다(표 7 참조).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청년층 신규채용의 비정규직 비중의 상승추세가 보다 가파르게 전개되고 있는 점이다. 2007년 청년층 임금근로자 절반 이상인 54.1%가 비정규직으로 신규채용되었고, 2015년에는 이보다 10%p가량 증가한 64.0%가 비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성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청년층 성별 비정규직 비중을 보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격차는 거의 없었고 대체로 30% 초중반대에서 횡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성별·학력별 비정규직 비중 또한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대체로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들은 2명 중에서 1명꼴로 비정규직이었고 초대졸과 대졸 이상에서는 대체로 5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청년층 특성별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 추이

(단위 : %)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청년층 전체		35.0	33.5	34.0	34.0	34.0	35.0
신규채용 <sup>1)</sup>		59.9	54.1	54.0	55.0	60.2	64.0
	남자	61.0	51.3	49.7	56.2	55.9	63.8
	여자	58.7	57.4	58.9	53.7	65.1	64.3
성별	남자	34.8	33.2	32.7	32.8	32.2	34.5
	고졸 이하	41.0	37.6	39.5	42.6	44.0	45.7
	초대졸	25.8	27.0	24.9	22.2	19.2	19.3
	대졸 이상	25.8	29.8	25.9	23.7	21.2	23.5
	여자	35.2	33.6	35.2	35.1	35.7	35.4
	고졸 이하	40.0	41.1	44.1	43.2	54.8	55.1
	초대졸	29.1	27.9	26.3	27.9	20.2	24.2
	대졸 이상	34.3	29.8	34.0	32.5	30.3	25.6
연령별	15~24세	44.2	43.4	47.5	48.7	49.2	49.0
	25~29세	28.4	27.6	26.5	25.5	23.7	24.1
근로형태별 <sup>2)</sup>	한시적 근로	75.2	72.2	70.2	64.2	61.5	58.7
	비전형 근로	20.1	20.5	19.1	17.6	15.0	14.6
	시간제 근로	22.8	26.6	29.6	35.3	41.1	46.3
재학생/졸업생	재학 및 휴학	64.6	58.5	60.8	63.5	70.9	71.9
	졸업 및 중퇴	28.7	28.1	27.5	26.0	23.9	24.8

주 : 1) 임금근로자 중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2) 청년층 비정규직 전체 중에서 각 근로형태가 차지하는 비중이며, 한시적 근로이면서 비전형 근로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한시적 근로자에도 들어가고 비전형 근로자에도 들어가므로, 비정규직 전체 수는 한시적 근로+비전형 근로+시간제 근로의 합이 아니어서 근로형태별 비중의 합은 100%가 아님.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우리나라 교육의 특성상 대학 진학률이 높아 20대 초반 연령층 대다수가 교육기관에 재학 혹은 휴학상태에 있기 때문에 15~24세 연령층의 절반가량이 비정규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20대 후반 연령층의 비정규직 비중이 20%대에서 추세적 감소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재학생 혹은 휴학생의 비정규직 비중은 2005년 64.6%에서 2007년 58.5%로 낮아졌다가 최근 71.9%를 기록하여 가파른 추세적 상승을 보였고, 졸업생 혹은 중퇴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한시적 근로와 비전형 근로는 감소하고 시간제 근로는 증가하는 현상이 청년층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 시간제 근로의 경우 2005년에 비해 2015년에는 20%p 이상 상승한 46.3%를 기록했다.

지표로 발표되는 고용동향과 청년층이 체감하는 노동시장 온도 사이의 괴리는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학등록금과 생활

비를 직접 벌어야 하는 학생들의 경우 재학중 아르바이트와 같은 시간제 근로를 통해 비정규직의 현실을 처음 접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청년층의 급증으로 최근 20대 초반 연령층과 교육기관 재학생 혹은 휴학생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청년층 비중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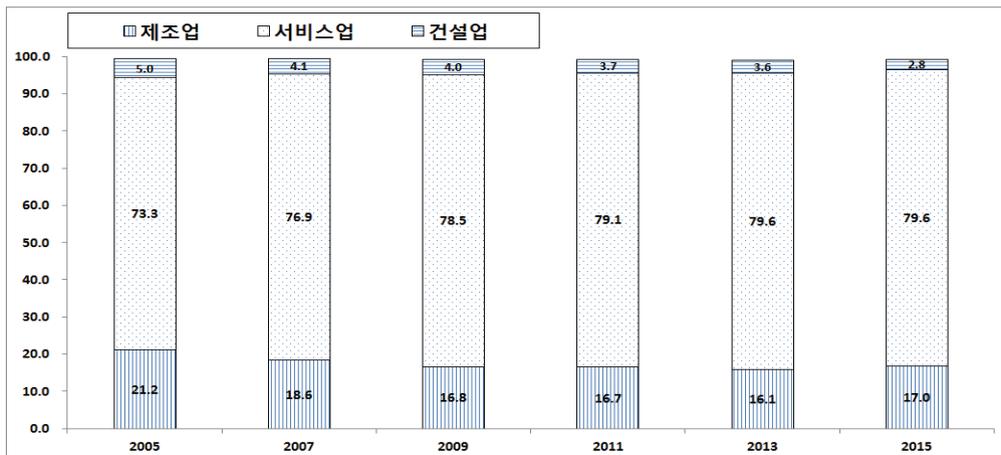
## 1. 제조업

[그림 5]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건설업에 종사하는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비중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2005년 이후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업은 청년층 일자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서비스업이 청년층 임금근로자 비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5년 8월 청년층 임금근로자는 3,740천 명으로 이 중에서 635천 명인 17.0%가 제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년층 고용여건이 어려운 현실에서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제조업은 청년층 취업자 규모도 6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60만 명 이상의 제조업 청년 취업자 중에서 10만 명가량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비중은 2015년 18.4%를 차지했다. 제조업 임금근로자는 대체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규모가 더 큰데 비정규직 비중은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졸 이상에서는 추세

[그림 5] 주요 산업별 청년층 임금근로자 비중

(단위 : %)



주: 맨 아래부터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순.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표 8〉 제조업 청년층 특성별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제조업 청년층 임금근로자 규모		852	724	617	612	571	635
제조업 청년층 비정규직 비중		20.5	19.6	20.4	18.2	17.2	18.4
신규채용 <sup>1)</sup>		39.8	22.5	37.3	39.3	37.1	48.2
성별	남자	20.6	18.4	19.4	19.8	15.8	16.4
	여자	20.2	21.8	22.4	14.8	20.3	22.5
학력별	고졸 이하	22.1	17.6	22.8	24.1	25.1	25.2
	초대졸	19.4	17.7	20.2	14.7	8.9	15.7
	대졸 이상	17.2	26.5	15.3	11.4	10.5	8.4
연령별	15~24세	29.2	26.6	31.2	26.8	30.7	29.3
	25~29세	15.7	17.1	16.3	15.5	10.3	12
근로형태별 <sup>2)</sup>	한시적 근로	91.3	90.8	90.1	88.4	85.9	80.8
	비전형 근로	9.5	10.4	5.9	9	10.2	11.1
	시간제 근로	6.5	2.4	8.7	7.1	7.5	9.4

주: 1) 임금근로자 중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2) 청년층 제조업 비정규직 전체 중에서 각 근로형태가 차지하는 비중이며, 한시적 근로이면서 비전형 근로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한시적 근로자에도 들어가고 비전형 근로자에도 들어가므로, 비정규직 전체 수는 한시적 근로 + 비전형 근로 + 시간제 근로의 합이 아니어서 근로형태별 비중의 합은 100%가 아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적 감소를 보이고 있다. 신규 채용되는 청년층 비정규직 비중의 변동폭이 크기는 하나 2015년 8월 기준 절반가량의 청년들이 비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근로형태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한시적 근로 형태의 비정규직 일자리로 취업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비중은 추세적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비전형 근로와 시간제 근로의 비중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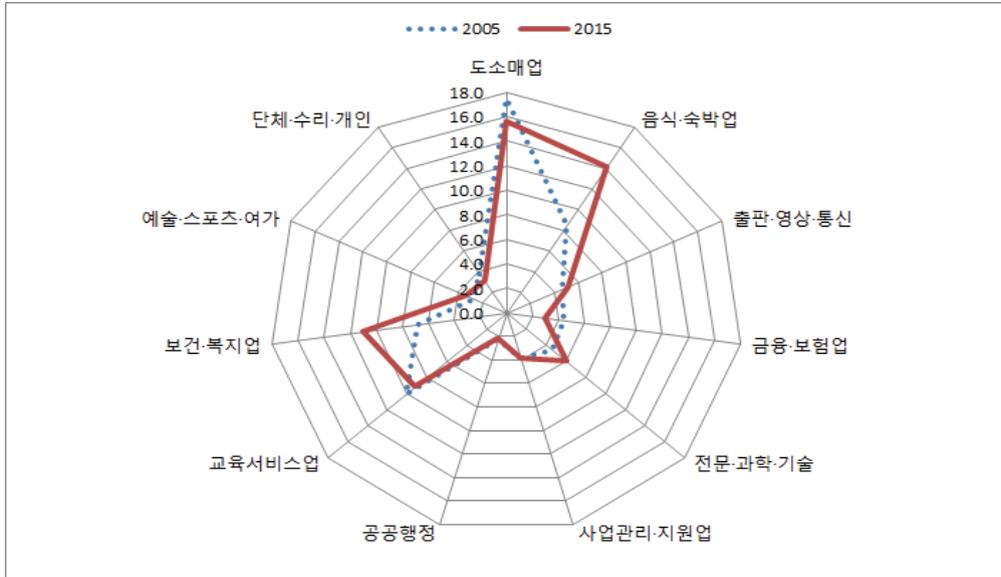
## 2. 서비스업

서비스업에 취업한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규모는 300만 명가량으로 전체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약 80%에 해당된다.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 청년층 서비스업 취업자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보건 및 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은 2015년 8월 기준 38.5%를 기록했다. 반면 서비스업에 신규로 채용되는 청년층을 살펴보면 제조업에 비해 훨씬 더 높고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5년 8월 기준 65.8%에 육박한다(표 9 참조).

[그림 6] 청년층 임금근로자 서비스업종별 비중(2005, 2015년)

(단위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청년층 서비스업의 비정규직 비중을 성별로 살펴보면 최근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2015년 8월 기준 남성 40.7%, 여성 37.0%).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청년층의 경우 2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과는 다르게 초대졸보다 대졸 이상에서 비정규직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대체로 제조업에 비해 전체적인 학력별 비정규직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시적 근로 형태의 비정규직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제조업과는 다르게, 서비스업에서는 시간제 근로 형태로 종사하는 청년층의 비중이 최근 더 높아졌다. 시간제 아르바이트 자리 등에서 일하는 청년층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 20대 초반 연령층의 비정규직 비중이 20대 후반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것과 재학생 혹은 휴학생의 비정규직 비중이 졸업생에 비해 훨씬 높은 것 등이 이를 암시한다.

특히 음식숙박업은 2005년 청년층 임금근로자 비중이 7.8%에서 2015년 14.2%로 여타 산업에 비해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여 왔는데, 청년층 비정규직 비중은 금융위기 직후 줄어들다가 2011년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2015년 8월 기준 58%를 기록한 것을 보면, 이 업종은 청년층 비정규직으로 취업자 규모가 증가해 온 대표적인 산업이라 볼 수 있다. 청년층 임금근로자 비중은 낮지만 사업관리·지원업과 예술·스포츠·여가에서는 2명 중 1명은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어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9〉 서비스업 청년층 특성별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서비스업 청년층 임금근로자 규모		2,941	2,992	2,876	2,890	2,820	2,979
서비스업 청년층 비정규직 비중		38.7	36.9	36.7	37.7	37.2	38.5
신규채용 <sup>1)</sup>		62.1	57.9	54.6	56.8	62.5	65.8
성별	남자	39.9	38.6	36.4	38.0	36.7	40.7
	여자	38.0	35.7	36.9	37.5	37.5	37.0
학력별	고졸 이하	45.2	45.1	44.8	47.5	54.1	55.5
	초대졸	30.9	30.6	27.3	28.7	21.5	23.8
	대졸 이상	33.8	30.0	33.7	31.8	28.7	27.5
연령별	15~24세	47.1	46.3	49.4	51.5	52.2	52.1
	25~29세	31.9	30.7	28.6	28.6	26.3	26.9
근로형태별 <sup>2)</sup>	한시적 근로	38.0	32.4	31.2	27.2	28.9	30.7
	비전형 근로	11.2	8.5	7.3	8.3	5.7	7.9
	시간제 근로	19.7	23.0	26.6	30.1	37.4	39.3
재학생/졸업생	재학 및 휴학	66.2	62.1	62.2	65.6	74.0	74.6
	졸업 및 중퇴	31.8	30.5	29.3	28.8	25.5	26.8
산업별	도소매업	31.2	32.1	28.5	26.9	30.7	31.5
	음식·숙박업	56.5	50.1	47.3	52.9	55.3	58.0
	금융·보험업	40.0	46.2	37.4	29.7	32.9	27.2
	사업관리·지원업	61.3	63.7	65.2	67.7	61.1	55.8
	교육서비스업	48.7	44.3	50.1	57.0	53.7	52.4
	보건·복지업	25.9	22.9	25.1	25.1	17.9	21.4
	예술·스포츠·여가	56.0	48.6	47.5	62.9	58.7	62.1

주: 1) 임금근로자 중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2) 청년층 서비스업 비정규직 전체 중에서 각 근로형태가 차지하는 비중이며, 한시적 근로이면서 비전형 근로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한시적 근로자에도 들어가고 비전형 근로자에도 들어가므로, 비정규직 전체 수는 한시적 근로+비전형 근로+시간제 근로의 합이 아니어서 근로형태별 비중의 합은 100%가 아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이상에서 살펴본 수치들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격년 8월 한 달간의 전년동월대비 비정규직 비중을 단순 비교한 것이다. 최근 청년층 취업자 통계와 실제 고용시장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현실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청년층의 취업 자체가 힘든 것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정규직처럼 질 좋은 일자리를 얻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라는 것을 청년층의 인적특성별, 산업별 비정규직 비중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8월 자료를 이용해 비정규직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변화를 분석했다. 2015년 8월 기준 비정규직은 전년동월대비 20만 명 가량 증가했고,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은 0.1%p 증가했다. 비정규직은 한시적 근로 형태의 기간제와 기대불가에서만 소폭 상승하였고, 특수고용을 제외한 비전형 근로 대부분에서 소폭 증가하였다. 올해에는 무엇보다 기간제 근로의 추세적 증가가 눈에 띄게 관찰되었는데 임금근로자 중 비중에 있어서 추세적 감소를 보이고 있는 비전형 근로를 넘어섰다. 한편 산업별 비정규직 고용규모와 임금근로자 비중을 살펴보았을 때 운수업과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등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비정규직 규모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임금근로자 중 비중은 대체로 감소하였는데 농림어업과 건설업, 청소나 경비직 같은 단순노무직종 비중이 높은 사업관리 및 지원업 등의 비정규직 비중은 5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5년 청년층 고용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예년에 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청년층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의 규모는 작년보다 상승하였다. 특히 신규 채용되는 청년층은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다. 비정규직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과 재학생의 비정규직 비중이 70%로 매우 높다는 것은 기간제 아르바이트 일자리 등과 같이 고용의 질이 낮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증가가 이루어졌음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청년층 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은 주요 산업별 비정규직 비중변화를 살펴보면, 제조업은 청년층 임금근로자 규모가 높고 비정규직 비중은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나, 올해 들어 신규 채용되는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중이 약 50%에 달해 고용의 질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 임금근로자 대부분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제조업에 비해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신규 채용되는 비정규직 비중은 60%대에서 추세적 상승을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남성의 비정규직 비중이 여성에 비해 높았고, 고졸 이하 학력을 지닌 청년층의 경우 2명 중 1명은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있었다. 산업별로는 청년층 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은 음식·숙박업의 비정규직 비중이 50% 이상이며 상승추세에 있어 청년층의 대표적인 기간제 아르바이트 일자리로 이루어진 산업으로 판단된다.

비정규직의 양적 증가가 괜찮은 근로조건·근로환경을 갖춘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수는 증가했지만 이들이 현실에서 맞닥뜨린 근로조

건·복지관련 지표들 대부분은 2014년에 비해 더 열악해졌고, 국제금융위기 이전 수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상대임금 수준(정규직=100)은 조사 이래 가장 낮은 54.5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이나 근로복지 관련 지표들은 비정규직으로라도 노동시장에 머무르고자 하는 자신들 의지와 상관없이 노동시장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이들이 처할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근로형태와 더불어 사업체 규모에 따른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KLI**